

제7강 성경의 맥잡기-정복시대

(여호수아)

1940년 대영제국은 암울했습니다. 영독전쟁에서 독일 나치의 군사력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국가 운명의 위기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 새로운 수상, 윈스턴 처칠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은 인물이었으며 낙천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으로 영국 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비롯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 발췌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네델란드 등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리고 있으며, 지중해에서도 곧 결전 태세를 갖춰야 하며, 공중전에서는 물론 영국 본토에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의회에서 늘 말해 왔듯이,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 것도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정책을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바쳐, 육해공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며, 어둡고 비참한 인류 최악의 맹주인 전제 정치에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정책입니다. 나에게 목표를 묻는다면, 나는 이 한마디입니다. 승리!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준해도 승리! 빅토리,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가 없다면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면, 아무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본토 즉, 이 섬을 방어할 수 있고, 전쟁의 폭풍을 견딜 수 있으며, 전제 정치의 위협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음을 만방에 입증할 것입니다.

유럽 일대의 유서 깊고 명망있는 많은 국가들이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지배와 악명 높은 나치 통치 체제에 무너졌고 쓰러질 지라도 우리는 결코 기력이 쇠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프랑스 지역에서도 해양에서도 싸울 것이며, 확신과 힘을 더욱 다져 가며 공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그 댓가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주변 정세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불신 때문에 40년(38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출애굽2세대는 전진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니면 선대 출애굽1세대를 본받아 그 두려운 환경을 회피했습니까?

40년동안 이스라엘 이끌었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편 지도할 임무는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님 그의 지도력을 거부하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었을 때, 영국이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도 그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업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정복시대는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①요단 ②여리고 ③정복 ④소유권

1.요단 : 물이 신비한 힘으로 갈라짐(수1-5장)

여호수아의 첫째 시험대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곳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행렬로 준비시키고,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운 뒤, 요단강을 향해 행진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거의 20마일이나 가르셨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고, 물은 다시 본래대로 합쳐졌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면, 요단은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발을 물에 담갔다는 것입니다.

2.여리고 : 여리고를 신비한 힘으로 정복함 (수6장)

사해 북쪽 요단 서쪽에 위치한 작은 오아시스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쪽 관문이기에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협적인 철옹성같은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재 육군사관학교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의 전투를 연구할 만큼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에 허리를 뚫고 들어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가나안의 여러 성읍이 연합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끊은 것이며, 남쪽 후방을 먼저 점령한 후, 북방을 점령한 것은 전쟁 전선의 이중화를 막기 위한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무너뜨릴 방도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앞으로 6일동안 하루에 한번씩, 그 성 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그 성 주위를 일곱 번 돈 후,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시대로 행했고, 그 성은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신비한 힘으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3.정복 : 가나안을 섬멸함 (수7-12장)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으로는 일체가 되었으나, 군사적 대응으로는 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각 왕들이 분할 통치하였고, 각기 자기 성과 주변 영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중해 방향으로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갈라 놓은 다음 여호수아는 남에서 북으로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7년 동안 가나안을 섬멸하는 일이 완결된 것입니다.

4.소유권 : 땅 분배를 마무리함 (수13-20장)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기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분배 받은 땅의 지배권을 마무리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분배받은 땅에 거하면서 지배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12지파 내에서도 지파공동체의 결속에 느슨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땅의 지배권의 책임을 가장 잘 수행한 지파는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지였으며, 가장 많은 지역, 요단 동서쪽을 모두 분배받은 지파는 마길 가문을 중심으로 한 므낫세 지파였으며,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스불론지파 단지파 아셀지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겸손하게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한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를 분배받기도 했습니다.



